포천시 문화예술단체장 ㊹

(사)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장 **이희용**

# 5개 협회가 함께 마련하는 공동축제 개최하자

(사)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는 지역정체성을 담보한 지역공연예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6년8월에 창립했으며 이희용(42·사진)지부장은 2001년2월에 취임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사업은 극단 한내 정기공연과 어린이연극제 12회, 청소년연극제 4회, 포천연극제 8회, 경기아마추어연극제 2004년 유치, 어린이연극제 전국대회 수상, 경기북부청소년 연극대회 유치 등이다.

이 지부장은 포천연극에 대해 "황무지에서 피어난 꽃과 같다. 이제 싹을 틔우는 시점이다. 25년동안 남다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천연극을 발전시키는데 걸림돌은 "전문예술인이 자생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터전 마련이 안돼 있으며 공연예술을 직업화할 수 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회원은 정회원 22명, 준회원 20명, 후원회원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연극인과 겸직,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포천연극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후원인 제도와 자문위원회 구성 등 일반시민들에게 연극관람의 필요성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포천연극협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에 대해 이 지부장은 전문연극인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공연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시립극단 창립이다.

이러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포천시가 도움을 주어야 할 일에 대해서 이 지부장은 "먼저 약속을 했던 사항을 실행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현재 포천시 조례대로 시립극단을 창립하기를 포천연극인들은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포천시민이 포천연극발전을 위해 할 일에 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연극공연을 관람하고 작품수준을 확인하고 격려해주기를 기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포천신문에 바라고 싶은 사항에 대해 이 지부장은 "그동안에도 잘 도와주었지만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지역예술인들의 노력하는 모습들을 잘 알려서 지역예술에 관심을 갖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해 오성과 한음, 봉래 양사언, 포천 메나리, 면암 최익현 선생등 포천의 명현을 공연예술화하여 포천의 역사성을 살리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겠다.

또 북부권역 청소년 연극제를 유치하여 경기북부 공연예술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에 나설 계획이며 기존에 실행하고 있는 포천어린이연극제, 청소년 연극제와 연계하여 통일에 대비한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창작품을 준비해서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진대학교와 연계하여 포천문화예술의 수준을 격상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포천예총을 구성하고 있는 5개 협회가 모두 연계된 문화예술축제를 만들어 내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부장은 "지금 우리 지역 문화예술은 포천을 근거지로 한 자격 갖춘 전문음악인들의 구성체인 음악협회도 설립되지 못한 열악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시립합창단이 창단돼 의구심을 자아내고, 포천에서 여러 해 동안 국악을 보급해오고 있는 포천국악협회 회원이 철저히 배제된 무용단도 국악단도 아닌 정체불명의 퓨전시립민속예술단이 만들어져 있으며, 공연예술의 황무지였던 포천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잡초같이 25년간 포천의 공연예술을 떠 바치고 있고 예술단체중 가장먼저 인준되어 11년간 협회활동을 하고 있는 포천의 연극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시립극단 창립은 형식적 조례만 만들어 놓고 설립자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포천예술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명분도 전문성도 실리도 없는 비효율적 문화예술 행정을 바로 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천에서 오랜 기간 묵묵히 활동해온 시민 예술인의 활동을 도와주고, 포천을 대표하는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담은 예술작품을 관람하고 향유하게 하여야 한다.

이 지부장은 또 "이제 우리 포천시민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손으로 만든 예술작품을 체험할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고 그 일은 포천예총과 시 당국의 담당자들 그리고 시민모두가 시급히 관심을 가져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포천예술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韓國의 선비정신 · 55

#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고려 말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자 정몽주는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으로 이성계 일파를 견제하는 데 온힘을 기울였다. 1392년 3월, 명나라에 갔던 세자 왕석(王奭)이 귀국하려 하자 공양왕은 이성계를 시켜 마중을 나가게 했다.

이성계는 세자를 맞기 위해 일찍 황주(黃州)로 떠났다. 하지만 너무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이성계는 날짜를 맞추기 위해 그곳에서 사냥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사냥 도중 이성계는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말았다.

이성계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아들 방원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측근인 판전객시사(判典客侍事) 조영규(趙英珪)를 불러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 그 자리에서 방원은 정몽주를 제거할 뜻을 내비쳤다.

방원은 부상한 이성계를 급히 개경으로 옮기기로 했다. 정몽주 역시 이성계의 부상이 그 일파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정몽주는 왕에게 상소를 올려 개경에 있는 정도전, 조준, 남은, 윤소종, 남재, 조박 등이 충신들을 모함하고 사병을 길러 나라를 위협하고 있다고 논박하였다. 이에 공양왕은 도당(都堂)에 명하여 이들의 시비를 가리도록 했다.

그 무렵 한 승려가 정몽주에게 이런 시를 주었다.

만리 강남 땅엔 꽃 피었을 터
봄바람 부는 어느 산인들 좋지 않으리.

정몽주의 앞날을 예감하고 어서 자취를 감추라는 뜻이 담긴 시였다. 시를 받아든 정몽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슬프다, 이미 늦었구나!"

사태가 급박해졌음을 깨달은 방원은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고 빨리 입궐하라고 재촉했다. 그러나 이성계는 거동이 불편했으므로 둘째아들 방과를 보내 임금에게 무죄를 아뢰도록 했다. 그러나 공양왕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방원은 정몽주를 제거하기로 결심하였다.

때마침 정몽주는 이성계의 부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그의 집으로 문병을 왔다. 방원은 급히 조영규에게 선죽교 아래에 매복해 있으라고 명한 후, 시간을 끌기 위해 문병을 마치고 나오는 정몽주를 자기 방으로 안내했다. 방원은 술자리를 베풀고, 은근히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았다.

"평소 포은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저와 술잔을 나누면서 시나 한 수 읊어주시지요."

"시골에 묻혀 훈장 노릇이나 하면 족할 위인이 어찌 명문 자제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겠소?"

그러자 방원은 정몽주에게 술을 한 잔 올리고 나서 말했다.

"그럼 제가 먼저 시를 읊어보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성황당 뒷담이 무너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영원히 살아본들 어떠하리.

정몽주가 화답하는 시를 읊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두 사람은 서로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금새 알아차렸다. 결국 방원과 정몽주는 서로 다른 입장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마침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유원(柳原)이 죽었다. 정몽주는 돌아오는 길에 그의 집에 들러 조문했다. 옛친구의 죽음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정몽주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우울한 심정으로 돌아오다가 그는 백화점(百花店)이라는 단골술집 앞에 이르자 곧장 말에서 내렸다. 그러고는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꽃밭으로 들어가며 주모에게 술을 청하였다.

주모가 술병을 들고 나오자 정몽주는 꽃밭에서 춤을 추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오늘 꽃바람이 참으로 고약하구나, 고약해!"

그는 꽃밭에 앉아 술 몇 잔을 마셨다. 술기운이 거나하게 오르자 그는 다시 말에 올라탔다.

이윽고 길을 떠나는데 활을 멘 무사가 앞질러 가는 모습이 보였다.

정몽주가 따라오는 녹사(錄事)를 돌아보며 말했다.

"예감이 좋지 않으니 그대는 뒤에 떨어져서 따라오라."

"소인은 대감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간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몽주가 재삼 꾸짖으며 말했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정몽주가 탄 말이 선죽교 앞에 이르자 조영규가 이끄는 무사들이 숲에서 뛰쳐나왔다. 조영규는 먼저 몽둥이로 그가 타고 있던 말의 머리를 내리쳐서 그를 떨어뜨린 후 곧바로 철편으로 쳐서 죽였다. 그때 뒤따르던 녹사도 정몽주의 몸을 끌어안은 채 함께 죽었다.

정몽주의 시체가 길가에 버려졌지만 사람들은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우현보가 이를 비통하게 여겨 은밀히 승려를 시켜 그 시체를 거두어 용인에 묻어주었다고 한다.

**정몽주(鄭夢周)**

1337년 (충숙왕 복위 6)~1392(공민왕4).

본관은 영일(迎日)이며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어머니 이씨(李氏)가 임신하였을때 난초 화분을 품에 안고 있다가 땅에 떨어뜨리는 꿈을 꾸고 낳았기 때문에 어릴 때 이름을 몽란(夢蘭)이라 하였다가 뒤에 몽룡(夢龍)으로 개명하고, 성인이 된 뒤에 다시 몽주라 고쳤다.

1357년(공민왕6) 감시(監試)에 합격하고, 1360년 문과에 장원하여 1362년에 예문관의 검열 및 수찬이 되었다.

이후 문무의 요직을 맡으면서 문명을 떨쳐 이색이 정몽주를 가리켜 '동방 이학(理學)의 시조'라 말할 정도였다.

1376년(우왕2)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인임(李仁任), 지윤(池奫) 등이 주장하던 배명친원(排明親元)의 외교방침에 반대하다가 유배되었으나 이듬해 풀려났다. 1384년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역임하고 문하평리(門下評理)를 거쳐 영원군(永原君)에 봉해졌다. 그후 삼사좌사(三司左使),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등을 지냈다.

고려 말 정치적으로 문란했던 시기에 그는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교육진흥을 꾀하는 한편, 훌륭한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기울어가는 고려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당시 이성계의 세력이 날로 확산되고 조준(趙浚), 남은(南誾), 정도전(鄭道傳) 등이 그를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이들의 음모를 제거하는 데 힘을 쏟았다. 하지만 이를 눈치 챈 이방원(李芳遠)에 의해 선죽교(善竹橋)에서 격살되었다. 문집으로 『포은집』이 전하고 있다.

## 뮤지컬 이야기 #❹

# 보드빌(Vaudeville) 액션과 성룡(成龍)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성룡의 영화인생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한 유선방송에서 방영된 적이 있다. 성룡은 그 다큐멘터리에서 버스터 키튼(Buster Keaton)과 해롤드 로이드(Harold Lloyd)의 영화를 거론하며 자신의 액션연기 스타일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술회했다. 물론 1983년 홍콩에서 발표된 〈프로젝트A〉 등의 작품들 속에서도 이미 그 영향을 감지할 수 있지만 〈러시아워(Rush Hour, 2000-2001)〉 시리즈와 〈상하이 나이츠(Shanghai Knights, 2003)〉 등을 통해 보여준 성룡의 헐리우드 액션물들은 버스터 키튼과 해롤드 로이드에 대한 오마쥬였다. 개봉당시 성룡의 어릿광대와도 같은 천진난만함과 아크로바틱 움직임을 동반한 아찔한 스턴트 연기는 훌륭한 보드빌 연기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미국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미국의 헐리우드에 입성하기 전까지 성룡(成龍)은 아시아의 톱스타였다. 적어도 액션연기자로써 아시아의 자존심이었다. 그의 무술연기는 마치 보드빌의 아크로바트처럼 항상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으며 다소 가볍지만 낙천적인 배역은 마치 보드빌의 어릿광대처럼 관객들이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렇지만 헐리우드는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마치 신인 연기자처럼 無에서부터 출발했다. 작은 체구에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없었던 성룡에게 언어는 커다란 딜레마였다. 그래서 〈러시아워〉의 출연제의가 왔을 때 처음엔 거절했다고 한다. 물론 거절의 이유는 다른데 있었다. 아시아에서 통한 그의 연기패턴이 헐리우드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특별한 캐릭터와 안무가 필요했다. 그때 그에게 새롭게 눈을 뜨게 해준 사람들이 바로 코메디 무성영화의 거장들이었다.

성룡이 열광했던 버스터 키튼의 아크로바틱 묘기들은 〈스팀보트 빌 주니어(Steamboat Bill, Jr., 1928)〉에 잘 나타나 있다. 거센 바람에 몸이 지탱하지 못할 만큼 떠밀리고 폭풍우에 간판이 날라 가고, 집이 무너지고, 집의 벽체가 버스터 키튼의 몸을 덮치는 위기의 순간에 다행히 열려진 문으로 인해 육포신세(?)를 면하는 아찔한 상황들. 이 장면들은 성룡의 헐리우드 액션 창조를 위한 교과서적인 장면들이었다. 무표정한 얼굴에 숨죽이는 스턴트 장면들과 기막힌 타이밍, 어릿광대적인 슬랩스틱 연기 패턴 등도 결코 표정연기가 다양하다고 볼 수 없는 성룡에게는 헐리우드 진출을 위한 좋은 연구 자료였다.

〈상하이 나이츠〉나 〈프로젝트A〉의 시계탑 액션은 오늘날 마치 해롤드 로이드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기억된다. 보드빌 연기가 처음에 어떤 풍자적인 틀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해롤드 로이드의 초기 희극적인 캐릭터는 채플린의 모방 선상에서의 인물이었다. 그렇지만 후일 비록 채플린이나 키튼 처럼 어릿광대와 같은 작은 체구는 아니었지만 렌즈 없는 뿔테 속에 보여 지는 낙천적인 모습과 수줍어하고 겸손한 그의 캐릭터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영국의 빅벤(Big Ben)에서 벌어지는 〈상하이 나이츠(Shanghai Knights)〉의 시계탑 장면은 바로 해롤드 로이드의 영화 〈세이프티 라스트(Safety Last, 1923)〉에 나오는 그 유명한 시계탑 장면을 확대한 것이다. 이미 이전 영화에서도 차용했던 장면이었지만 〈상하이 나이츠(Shanghai Knights)〉에서는 마치 존경하는 해롤드 로이드에게 작품을 헌정 하듯이 좀 더 확신에 찬 장면으로 재탄생되었다. 성룡 연기의 특성은 마치 보드빌에서의 아크로바트처럼 온몸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액션을 장기로 한다. 성룡이 호텔에서 회전문을 이용해 경관들을 제압하는 장면이나 시장에서의 격투장면 등은 일면 찰리 채플린의 재림과도 같은 명연기였다. 쫓고 쫓기는 와중에서도 성룡은 마치 채플린의 초기 작품〈이지 스트리트(Easy Street, 1917)〉나 버스터 키튼의 〈캅스(Cops, 1922)〉 처럼 끊임없는 움직임과 넉살스러움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결코 잔혹하지 않으면서도 화끈한 그의 액션은 항상 즐거움으로 결말을 맺기 때문에 액션을 좋아하지 않는 관객들에게도 별 부담이 없다. 비록 〈상하이 나이츠(Shanghai Knights)〉가 흥행적인 면에서 전작들보다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보드빌 연기로 재무장하고 홍콩영화가 아닌 헐리우드 무술영화를 창조하기 위한 성룡의 끊임없는 노력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 어린이 한자교실 양성반 추가 교육

## 포천문화원 실버문화학교 수료생 21명 배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1월10부터일 30일까지 고령화에 대비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실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하고 포천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어린이 한자교실 강사 양성반 추가 지원 교육을 실시했다.

2006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실시된 어린이 한자교실 양성반은 노인들에게 강사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한자를 교육하도록 하여 노인세대와 어린세대간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노년세대 은퇴 후 시간을 지역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후배양성에 힘쓰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했으며2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들은 현재 태봉 초등학교와 마을회관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한문을 강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1월10일 개강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일반강의 24시간, 특강2시간 실시 후 현장체험 및 실습 봉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89)

# 양만고(楊萬古)의 시(詩)

「서리맞은 단풍 숲 비단처럼 붉은데 일만 봉우리의 가을빛 시내 속에 있네 조용히 짝지어 바위 위에 앉으니 스님은 어느 곳에서 왔는가 물어보네」

수원산 옥금자 아래에 있는 옥동반석(玉洞盤石)에서 양만고 님이 지은 시이다. (양만고는 양사언 선생의 아드님이다.)

「늘 바람 고요하고 연기 걷히는 밤을 생각하며 고기는 작은 물결 위에 뛰고 달은 연못에 비추네」

이 시는 장동에 있는 용연(龍淵)에서 지은 시이다. (양만고님의 시)

「옥 같은 시냇물 하늘에서 쌍폭되어 구름·숲·백화담에 봄빛이 곱구나 심상히 흐르는 물 뉘라서 찾아올고 지척이 무릉도원인데 세상에선 모르네」

이 시는 천주산 아래 독곡촌에 있는 독곡폭포를 보고 양만고 님이 지은 시이다. 이렇듯 양사언 선생의 아드님이신 양만고 님은 양사언 선생 못지 않게 내 고향 포천을 사랑한 자연주의 서정시의 대가였다.

「견성지」에 나타나 있는 8대 명승(건륭, 지장대, 초연대, 영광정, 독곡폭포, 옥동반석, 용연, 석포)의 세 곳을 노래한 양만고 님의 시는 내 고향 포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님의 호를 보아도 님의 풍류를 알 수 있다. 자는 「도일(道一)」호는「감호(鑑湖)」로 1574년에 11세시 부친 양사언을 여의었다.

임진왜란 때 90세된 노숙모를 모시고 수원산으로 피난하였을 때 갑자기 왜병을 만나게 되었다. 모두 무서워 도망을 쳤으나 4명의 적병을 감당하여 숙모님을 온전히 모셨다 한다. 성북촌에 대대로 살았다. 문장에 능하였으며 산수(山水)를 즐겼다. 문과에 급제하여 인천(仁川)등 여러 고을을 다스렸다. 비록 청백리로 책록되지는 않았으나 청백리로 칭송이 높았다고 한다.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대책을 물었는데 「구전구수책(九戰九守策)」을 올렸다. 조정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81세에 세상을 떠났다. 문집 4권을 남겼다. 묘는 일동면 길명리에 있다.

알성문과 을과에 급제하였던 양만고 님은 「장령정희등묘표」에 명필을 남겼다.

옛날 양만고 님은 물론 여러 선현들이 아끼고 사랑하던 내 고향 포천의 명승을 복원하고「시비」도 세우고 즐기는 사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면관계상 시의 원문(原文)을 소개치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 초대 漢詩

# 賞菊(平式)

錦岩 楊載昌
(포천향교 전교)

**黃花滿發又重陽 百卉萎殘獨也芳(황화만발우중양 백훼위잔독야방)**
국화가 만발하는 또 중양절을 맞이 하니. 온갖 꽃(풀)은 시들어도 국화는 홀로피었네.

**晩節凌霜誇後苑 遲彫忍苦耀前場(만절릉상과후원 지조인고요전장)**
늦게까지 서리를 이기면서 후원에서 피어있고 늦도록 참고견디면서 앞마당에서 빛 을내고 있네.

**陶翁愛玩其淸氣 屈老惟探是淡香(도옹애완기청기 굴로유탐시담향)**
도연명선생은 국화의 맑은 기상을 사랑했으며, 굴원선생은 국화의 맑은 향기를 좋아했네.

**歲序循環誰敢繫 吟詩詠歎惜微光(세서순환수감계 음시영탄석미광)**
일 년 절기가 바뀌는 것 누가 감히 잡아 매겠는가. 시를 읊고 노래하면서 촌음을 아끼리라.